

# 看護大學生들의 臨床實習에 對한 態度 調査 研究

金 珠 熙

(漢陽大學校 醫科大學 看護學科)

—目 次—

- I. 序 論
- II. 研究對象 및 研究方法
- III. 研究結果
- IV. 考 察
- V. 結 論 및 提言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看護教育에는 實習教育이 重要な 位值를 차지하고 있다. 정<sup>1)</sup>은 看護教育에서 現場學習은 매우 效率的인 教育方法이라고 하였다. 看護大學 敎科課程 구성에서 看護學敎授들의 案을 보면 河<sup>2)</sup>는 教育課程은 人文社會科學, 基礎科學課程, 看護專功課程, 세 分野를 골고루 分布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고 조<sup>3)</sup>와 한<sup>4)</sup>은 일반과목 50%, 專門科目 50%로 보았으며 최<sup>5)</sup>는 일반과목 50%, 실습 35%, 건강봉사 15%로 보았다. 金<sup>6)</sup>의 工業專門學校와 工科大學 實習時間과 講議時間 調査比較를 보면 專門大學은 實習 50%, 講議 50%, 大學은 實習 30%, 講議 7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實習을 必

要로 하는 學科에서는 專功科目에서 大部分 實習教育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全 敎科課程의 35%은 實習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sup>7)</sup>의 안을 보면 看護學에서 實習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實習教育이 重要함에도 불구하고 學生들이 實習教育에 懷疑를 일으키거나 興味를 잃는 일이 많음이 지적되었다.

김<sup>8)</sup>의 종합보고에 보면 看護學의 만족도는 35~50%에 불과한데 看護學에 失望한 경우는 67%로 나타났다. 또 轉科希望을 경험한 學生들이 71%로 높았다.

看護學에 흥미를 잃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實習에서의 갈등으로 學生 90%가 實習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學生들은 期待와 어긋나는 實習의 경험으로 위축 내지 좌절한다.<sup>9)</sup>

看護學生들이 學年이 높아질수록 專功에 滿足度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는데 學年이 높아질수록 臨床實習時間이 많아지는 것과 比例하고 있다.<sup>10)</sup>

學生들은 實習이 익숙하고 친근감을 갖고 있는 學校生活에서 낯설은 미지의 世界로 옮기는 일이 되며 理論과 理想을 추구하는 學校生活에서 實習과 現實이 위주가 되는 臨床實習에 부딪힐 때 충격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sup>11)</sup>

이러한 충격과 學生들의 滿足度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오<sup>12)</sup>의 방법제시로는

1) 정송자: "간호교육에 있어서 현장견학의 이론과 실제" 대한간호 11권 5호, 1972, pp. 37~46.  
 2) 하영수: "간호교육과정의 구성"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pp. 56~57.  
 3) 조원경: "교과과정 구성안"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pp. 59~61.  
 4) 한윤복: "교과과정 구성안"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pp. 58~59.  
 5) 최상훈: "교과과정 구성안"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pp. 62~64.  
 6) 김원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교육내용"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pp. 54~55.  
 7) 최상훈: 상계서.  
 8) 김의숙: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교육" 대한간호 20권 4호, 1981, pp. 50~59.  
 9) 최연순: "입상간호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대한간호 13권 5호, 1974, pp. 39~43.  
 10) 김의숙: 전계서.  
 11) 김미자: "현실충격" 대한간호 20권 4호, 1981, pp. 63~65.  
 12) 오가진: "입상간호교육의 진행과정" 대한간호 13권 6호, 1974, pp. 47~51.

臨床實習敎育은 每日 實習內容과 課題를 學生과 함께 계획한다. 敎授는 學生이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잘 適應하도록 한다. 敎授는 學生 스스로 功夫하는 方法을 일러주는 resource person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Jean G. French는 看護敎育이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臨床知識과 實習이 잘 배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13)</sup>

또 看護敎育이 未來에 어떤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에 對한 우리나라 學者反應 中에는 看護實習의 강화가 포함되었다.<sup>14)</sup> 허<sup>15)</sup>의 看護敎育 시안에서도 看護기술과 지식, 基礎科學지식, 人間關係 習得이 4年制 大學 目標에서 外國이나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要求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최<sup>16)</sup>에 의하면 看護大學 學生의 問題에도 効果적인 學習方法을 알고싶다는 것이 78%에 달하였다.

이<sup>17)</sup>의 연구에서 인용된 Dr. Oie Sand의 학습원리 중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다.

- ① 學習이란 學習者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다.
- ② 動機를 마련해 주는 것이 學習의 要點이다.
- ③ 學生들이 滿足感을 가질 때 學習은 더욱 效果的이다.
- ④ 對人關係는 學習상황에 重要한 것이다.
- ⑤ 學生, 敎授 兩者에 依한 評價는 自己行動을 바랍직하게 變化시키는데 重要要因이 된다.

또 이<sup>18)</sup>의 인용에서 Dr. Bridgman 주장은 學生의 臨床學習의 現場인 病院의 환경은 態도와 方法에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看護學生 實習이 갖고 있는 問題點을 是正하고 補完하기 위하여는 學生들이 臨床實習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問題를 發見하는데 勞力하여야 한다고 본다.

看護敎育의 效率性을 높이고 專功에 對한 自富心과 긍지를 가지고 功夫하게 하려면 臨床實習에 對한 滿足感을 높이는 일이라고 思料된다.

이를 위한 지금까지의 많은 研究가 있었으나 本人은 李<sup>19)</sup>의 연구에서 인용된 원리 중 學生이 學習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원리와 學習 동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學生들이 滿足感을 가지는 일과 對人關係가 重要하다는 이론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本 研究에서는 구체적으로 學生들이 臨床實習을 들어가기 前 준비에서 그릇된 先入見이나 不安感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나 큰지, 기대감은 무엇이며 얼마나 큰지 알아보려고 하였고 또 實習을 경험한 후 不安感和 滿足感이 어느 면에서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事前, 事後에 가지는 學生들의 反應이 學年別, 宗教有無別, 家族中 入院治療를 받은 경험 有無別, 本人의 入院治療有無別, 家族이나 親戚中 看護員 有無別, 看護學科 選擇을 自意로 決定한 如否에 따라 어떠한 關係가 있는지 證明하여 보므로써 學生들의 臨床實習의 效率化를 가져오는 데 活用할 資料를 얻고자 하여 本 研究는 시도되었다.

## 2. 研究의 假說

- (1) 臨床實習에 對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和 期待感, 實習後 不安感和 滿足感은 學年別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臨床實習에 對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和 期待感, 實習後 不安感和 滿足感은 宗教有無別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臨床實習에 對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和 期待感, 實習後 不安感和 滿足感은 家族中 入院治療를 받은 경험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臨床實習에 對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和 期待感, 實習後 不安感和 滿足感은 本人의 入院治療 경험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5) 臨床實習에 對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和 期待感, 實習後 不安感和 滿足感은 家族이나 親戚中 看護員 有無別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6) 臨床實習에 對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和 期待感, 實習後 不安感和 滿足感은 看護習을 自意 또는 他意選擇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허경호: "간호교육목표의 일시안" 대한간호 11권 1호, 1972, pp. 6~16.

14) 허경호: 상계서.

15) 상계서.

16) 최현자: "간호학생 문제의 일 분석연구" 대한간호 11권 4호, 1972, pp. 38~50.

17) 이화순: "임상간호 교육을 위한 일 연구" 대한간호 11권 4호, 1972, pp. 26~32.

18) 이화순: 상계서.

19) 이화순: 전계서.

### 3. 用語의 定義

臨床實習: 看護學 實習過程中 綜合病院을 利用한 病棟에서의 實習단을 意味한다.

領域: 臨床實習前의 先入見 및 不安感과 期待感, 實習後의 不安感과 滿足感의 4個 領域으로 區分하여 質問紙를 構成하였다.

### 4. 研究의 制限點

(1) 研究對象이 서울市內 5個 4年制 私立大學 學生에 限하므로 그 이상 一般化할 수 없다.

(2) 實習前에 先入見 및 期待感에 對한 質問은 過去를 答한 것이므로 記憶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II. 研究對象 및 研究方法

### 1. 研究對象

서울市內 所在 4年制 私立大學課程中 檢査가 가능한 5個大學 3, 4學年 在學生中 名大學 60名씩 300名 표本에게 1981年 6月 4日부터 6月 20日까지 16日間에 걸쳐 質問紙를 배부하여 254名 85% 回答하였다.

### 2. 研究道具

研究道具로는 本 研究者가 作成한 質問紙를 使用하였는데 調査對象者의 一般事項과 臨床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과 期待感, 臨床實習後 不安感과 滿足感의 4個 領域으로 되어 있으며 一般事項 6個 質問과 名領域에서 10個 質問으로 總합 46問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一般事項은 選擇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예” “아니오” “모르겠다”로 기표하도록 하였다.

本 研究에 앞서 1個大學 3, 4學年 學生들에게 事前 調査를 2次에 걸쳐 실시하여 質問紙의 內容을 修整하였다.

### 3. 資料 處理方法

本 研究에 提視된 假說을 檢證하기 爲하여 名領域別 “예” “아니오” “모르겠다”로 記表된 問項數를 그대로 點數로 換算하였다. 各領域에 따른 檢査는 百分率과  $\chi^2$ -test를 거쳐 檢證하였다.

## III. 研究結果

本 研究의 假說 檢證을 爲해 수집된 資料를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다.

〈표 1〉 학년별 분포

학 년	응 답 자 수	비 율 (%)
3 학 년	104	41%
4 학 년	150	59%
계	254	100.0%

〈표 2〉 종교 유무별 분포

종교 유무별	응 답 자 수	비 율 (%)
유	169	67%
무	84	33%
계	253*	100.0%

\* 무응답자 1명

〈표 3〉 가족 중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별 분포

가족입원경험	응 답 자 수	비 율 (%)
유	149	59%
무	105	41%
계	254	100.0%

〈표 4〉 본인의 입원치료 경험별 분포

본인입원경험	응 답 자 수	비 율 (%)
유	56	22%
무	197	78%
계	253*	100.0%

\* 무응답자 1명

〈표 5〉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원이 있는 분포

가족친척중 간호원	응 답 자 수	비 율 (%)
유	81	32%
무	172	68%
계	253*	100.0%

\* 무응답자 1명

〈표 6〉 간호학과 선택을 자의로 결정한 분포

선택 동기	응 답 자 수	비 율 (%)
자 의	160	63%
타 의	93	37%
계	253*	100.0%

\* 무응답자 1명

<표 7>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질문내용	예 응답자수	(%)	아니오 응답자수	(%)	모르겠다 응답자수	(%)	계 응답자수	(%)
1. 임상실습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진다.	142	56	83	32.6	29	11.4	254	100
2. 병원은 병원이 많은 곳으로 불결함이 연상된다.	117	46	118	46.5	19	7.5	254	100
3. 병원은 행동이 제한된 곳이므로 답답한 생각이 든다.	184	72.5	56	22	14	5.5	254	100
4. 병원은 주사기와 같은 예리한 기구가 생각난다.	90	35.4	145	57.1	19	7.5	254	100
5. 임상실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175	68.9	56	22	23	9.1	254	100
6.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데 자신이 없다.	128	50.4	87	34.2	39	15.4	254	100
7. 임상실습을 위한 간호부 차림을 어색하게 느낀다.	75	29.5	164	64.6	15	5.9	254	100
8. 환자들의 나쁜 병에 건강이 상할까 걱정된다.	112	44.1	113	44.5	29	11.4	254	100
9. 특히 남자 환자를 간호할 일이 걱정된다.	68	26.8	166	65.3	20	7.9	254	100
10. 병원의 많은 직원들과 만나야 할 일이 걱정된다.	54	21.3	174	68.5	26	10.2	254	100
계	1,145	45.0	1,162	45.8	233	9.2	2,540	100

<표 8>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질문내용	예 응답자수	(%)	아니오 응답자수	(%)	모르겠다 응답자수	(%)	계 응답자수	(%)
1. 임상실습은 간호학에 꼭 필요할 것이다.	221	87	16	6.3	17	6.7	254	100
2. 많은 환자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235	92.5	11	4.3	8	3.2	254	100
3. 그동안 배운 이론적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191	75.2	39	15.4	24	9.4	254	100
4. 환자 간호 기술이 늘게 될 것이다.	108	42.5	98	38.6	48	18.9	254	100
5. 간호부를 입고 임상실습에 나가 보고 싶다.	99	39	105	41.3	50	19.7	254	100
6. 환자 간호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141	55.5	66	26	47	18.5	254	100
7.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서 보람을 얻을 것이다.	193	76	22	8.6	39	15.4	254	100
8. 환자들은 간호학생 실습생을 좋아할 것이다.	120	47.2	58	22.8	76	30	254	100
9. 인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29	50.8	45	17.7	80	31.5	254	100
10.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과 대인관계가 넓어질 것이다.	104	40.9	81	31.9	69	27.2	254	100
계	1,541	60.7	541	21.3	458	18.0	2,540	100

學生은 84名(33%)이었다. <표 2>

A. 一般事項

(3) 家族中 入院治療를 받은 경험이 있는 學生이

(1) 學年別 分布는 4學年 150名(59%), 3學年 104名 (41%)이었다. <표 1>

149名(59%), 경험이 없는 學生이 105名(41%)이었다.

<표 3>

(2) 宗教를 가진 學生은 169名(67%), 宗教가 없는

(4) 本人이 入院治療를 받은 경험이 있는 學生이 56

〈표 9〉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질문내용	예 응답자수	(%)	아니오 응답자수	(%)	모르겠다 응답자수	(%)	계 응답자수	(%)
1.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다.	164	64.6	61	24.0	29	11.4	254	100
2.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환자와의 대화에 미숙한 점이다.	117	46.0	102	40.2	35	13.8	254	100
3.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수간호원 간호원 선배들과의 대인관계 문제이다.	127	50.0	95	37.4	32	12.6	254	100
4.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의사나 기타 치료요원과의 역할 갈등이다.	128	50.4	87	34.2	39	15.4	254	100
5.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간호기술의 부족이다.	167	65.7	66	26.0	21	8.3	254	100
6. 간호실습부를 착용하는 것이 불안하다.	33	13.0	198	78.0	23	9.0	254	100
7. 임상실습 도중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하다.	17	6.7	224	88.2	13	5.1	254	100
8. 환자간호하는 일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54	21.3	176	69.3	24	9.4	254	100
9. 졸업 후 간호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73	28.7	132	52	49	19.3	254	100
10. 간호학전공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90	35.4	114	44.9	50	19.7	254	100
계	970	38.2	1,255	49.4	315	12.4	2,540	100

〈표 10〉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질문내용	예 응답자수	(%)	아니오 응답자수	(%)	모르겠다 응답자수	(%)	계 응답자수	(%)
1. 임상실습에 대하여 절대적 필요성을 가진다.	161	63.4	47	18.5	46	18.1	254	100
2. 임상실습 후 간호기술 습득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	169	66.5	40	15.8	45	17.7	254	100
3. 임상실습전에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었다.	94	37	110	43.3	50	19.7	254	100
4. 환자간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다.	142	55.9	59	23.2	53	20.9	254	100
5. 간호실습부를 입고 환자앞에 서면 자부심을 느낀다.	85	33.5	103	40.5	66	26.0	254	100
6. 환자간호 후 봉사자로서의 기쁨을 얻는다.	139	54.7	60	23.6	55	21.7	254	100
7. 배운바 간호지식 적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80	31.5	119	46.9	55	21.6	254	100
8. 대인관계의 적응이 쉬워졌다.	137	53.9	61	24.0	56	22.1	254	100
9. 졸업후 간호원생활을 되도록 하고 싶다.	125	49.2	72	28.4	57	22.4	254	100
10.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대한 후회감이 있다.	68	26.8	129	50.8	57	22.4	254	100
계	1,200	47.2	800	31.5	540	21.3	2,540	100

명(22%), 경험이 없는 학생이 197명(78%)이었다.

〈표 4〉

(5) 家族이나 親戚中 看護員이 있는 학생은 81名(32%), 없는 학생은 172名(68%)이었다. 〈표 5〉

(6) 看護學科 選擇을 自意로 擇한 학생은 160名(63%), 他意로 擇한 학생은 93名(37%)이었다. 〈표 6〉

B. 領域別 反應結果

(1) 臨床實習에 對한 先入見 및 不安感 中에는 “病院은 行動이 制限된 곳이므로 適當한 생각이다”는 問項이 72.5%로 가장 높았고 “臨床實習에 對한 知識이 不足해서 不安하다”는 68.9%, “臨床實習에 對한 막연

한 不安感"이 56%이었다. <표 7>

(2) 臨床實習에 對한 實習前 期待感에 對한 것은 "많은 患者를 직접 對할 수 있는 經驗이 될 것이다"가 92%로 높았고 "臨床實習은 看護學에 꼭 필요한 것이다"가 87%, "患者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서 보람을 얻을 것이다" 76%이었다. <표 8>

(3) 臨床實習 經驗 後 實習에 對한 不安感은 "臨床實習時 不安을 느끼는 이유는 看護技術의 不足이다" 65%이며 "知識의 不足이다"가 64.6%, "醫師 其他 醫療人員과의 역할갈등"과 "首看護員 및 선배看護員들과 의 對人關係"가 50% 수준이었다. <표 9>

(4) 臨床實習 經驗 後 느끼는 滿足感에서는 "임상실습 後 看護技術에 좋은 結果를 얻는다"가 66.5%, "臨床實習에 對하여 절대적 必要性을 느낀다"가 63.4%, "患者看護에 對한 어느 정도 自信感이 생긴다"가 55.9%이다. <표 10>

C. 假說 檢證結果

(1) 臨床實習에 對한 各 領域別 反應이 學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年別 臨床實習에 對한 先入見 및 不安感에서는 3學年이 49.7% 긍정반응 하였는데 4學年은 41.9%이었다.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實習前 先入見이나 不安感은 낮아졌다. <표 11>

<표 11> 學年別 臨床實習에 對한 先入見 및 不安感

學年別	예 응답문항수 (%)	아니오 응답문항수 (%)	모르겠다 응답문항수 (%)	계 응답문항수 (%)
3학년	517 (49.7)	454 (43.7)	69 (6.6)	1,040 (100)
4학년	628 (41.9)	708 (47.2)	164 (10.9)	1,500 (100)
계	1,145 (45.1)	1,162 (45.7)	233 (9.2)	2,540 (100)

$\chi^2=21.346 \quad df=2 \quad p<0.01$

學年別 期待感은 3學年이 55.2%, 4學年은 64.4%이었다.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實習前 期待感이 높아졌다. <표 12>

學年別 實習後 不安感은 意味있는 結果가 沒되었다. 그러나 滿足感은 3學年이 42.5%, 4學年이 50.5%로 全體의 으로 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다소 상승하였다. <표 13>

그러므로 假說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宗教有無別 各 領域에 對한 反應은 宗教있는 學

<표 12> 學年別 臨床實習에 對한 期待감

學年	예 응답문항수 (%)	아니오 응답문항수 (%)	모르겠다 응답문항수 (%)	계 응답문항수 (%)
3학년	575 (55.29)	265 (25.58)	200 (19.13)	1,040 (100)
4학년	966 (64.4)	276 (18.4)	258 (17.2)	1,500 (100)
계	1,541 (60.67)	541 (21.3)	458 (18.03)	2,540 (100)

$\chi^2=23.701 \quad df=2 \quad p<0.01$

<표 13> 學年別 臨床實習 經驗 後 느끼는 滿足감

學年別	예 응답문항수 (%)	아니오 응답문항수 (%)	모르겠다 응답문항수 (%)	계 응답문항수 (%)
3학년	442 (42.5)	380 (36.54)	218 (20.96)	1,040 (100)
4학년	758 (50.53)	420 (28.0)	322 (21.47)	1,500 (100)
계	1,200 (47.24)	800 (31.5)	540 (21.24)	2,540 (100)

$\chi^2=22.2336 \quad df=2 \quad p<0.01$

<표 14> 종교유무別 臨床實習에 對한 先入見 및 불안감

종교유무	예 응답문항수 (%)	아니오 응답문항수 (%)	모르겠다 응답문항수 (%)	계 응답문항수 (%)
유	717 (42.4)	816 (48.3)	157 (9.3)	1,690 (100)
무	422 (50)	344 (40.9)	74 (9.1)	840 (100)
계	1,139 (45.02)	1,160 (45.85)	231 (9.13)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13.535 \quad df=2 \quad p<0.01$

<표 15> 종교유무別 臨床實習에 對한 期待감

종교유무	예 응답문항수 (%)	아니오 응답문항수 (%)	모르겠다 응답문항수 (%)	계 응답문항수 (%)
유	1,059 (62.7)	326 (19.3)	305 (18.0)	1,690 (100)
무	463 (55.1)	216 (25.7)	161 (19.2)	840 (100)
계	1,522 (60.16)	542 (21.42)	466 (18.42)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15.983 \quad df=2 \quad p<0.01$

생에게서 實習前 先入見이나 不安感이 42.4%, 宗教없는 學生은 50%로 나타났다. <표 14>

〈표 16〉 종교유무별 임상실습경험후 느끼는 만족감

종교유무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유	826 (48.9)	497 (29.4)	367 (21.7)	1,690 (100)
무	369 (43.9)	297 (35.4)	174 (20.7)	840 (100)
계	1,195 (47.23)	794 (31.38)	541 (21.37)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9.146$   $df=2$   $0.01 < p < 0.02$

〈표 17〉 가족 중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별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가족원경험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유	859 (57.65)	339 (22.75)	292 (19.8)	1,490 (100)
무	672 (64.0)	204 (19.4)	174 (16.6)	1,050 (100)
계	1,531 (60.28)	543 (21.38)	466 (18.34)	2,540 (100)

$\chi^2=9.908$   $df=2$   $p < 0.01$

〈표 18〉 가족 중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별 임상실습 경험 후 느끼는 만족감

가족원경험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유	668 (44.83)	475 (31.88)	347 (23.29)	1,490 (100)
무	533 (50.76)	318 (30.29)	199 (18.95)	1,050 (100)
계	1,201 (47.28)	793 (31.22)	546 (21.50)	2,540 (100)

$\chi^2=10.084$   $df=2$   $p < 0.01$

〈표 19〉 본인의 입원치료 경험별 임상실습 후 느끼는 만족감

본인입원경험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유	258 (46.07)	161 (28.75)	141 (25.18)	560 (100)
무	940 (47.71)	640 (32.49)	390 (19.80)	1,970 (100)
계	1,198 (47.35)	801 (31.66)	531 (20.99)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7.806$   $df=2$   $p < 0.05$

〈표 20〉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원 유무별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가족친척중간호원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유	520 (64.20)	142 (17.53)	148 (18.27)	810 (100)
무	1,002 (58.26)	404 (23.49)	314 (18.25)	1,720 (100)
계	1,522 (60.16)	546 (21.58)	462 (18.26)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9.801$   $df=2$   $p < 0.01$

〈표 21〉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원 유무별 임상실습 경험 후 불안감

가족친척중간호원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유	284 (35.06)	409 (50.49)	117 (14.45)	810 (100)
무	692 (40.23)	832 (48.37)	196 (11.40)	1,720 (100)
계	976 (35.58)	1,241 (49.05)	313 (12.37)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7.954$   $df=2$   $0.01 < p < 0.02$

〈표 22〉 가족이나 친척 중 간호원 유무별 임상실습 경험 후 느끼는 만족감

가족친척중간호원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유	409 (50.49)	228 (28.15)	173 (21.36)	810 (100)
무	786 (45.70)	573 (33.31)	361 (20.99)	1,720 (100)
계	1,195 (47.23)	801 (31.66)	534 (21.11)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7.002$   $df=2$   $p < 0.05$

〈표 23〉 간호학과 선택을 자의로 결정한 여부에 따른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선택의여부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자 의	691 (43.19)	766 (47.88)	143 (8.93)	1,600 (100)
타 의	451 (48.49)	392 (42.15)	87 (9.36)	930 (100)
계	1,142 (45.13)	1,158 (45.77)	230 (9.1)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7.741$   $df=2$   $0.05 < p < 0.02$

〈표 24〉 간호학과 선택을 자의로 결정한 여부에 따른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선택기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자 의	999 (62.44)	310 (19.38)	291 (18.18)	1,600 (100)
타 의	527 (56.67)	230 (24.73)	173 (18.60)	930 (100)
계	1,526 (60.32)	540 (21.34)	464 (18.34)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10.851$  df=2 p<0.01

〈표 25〉 간호학과 선택을 자의로 결정한 여부에 따른 임상실습 후 불안감

선택기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자 의	588 (36.75)	831 (51.94)	181 (12.31)	1,600 (100)
타 의	383 (41.18)	409 (43.98)	138 (14.84)	930 (100)
계	971 (38.38)	1,240 (49.01)	319 (12.61)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15.842$  df=2 p<0.01

〈표 26〉 간호학과 선택을 자의로 결정한 여부에 따른 임상실습 경험 후 느끼는 만족감

선택기	예 응답분항수 (%)	아니오 응답분항수 (%)	모르겠다 응답분항수 (%)	계 응답분항수 (%)
자 의	813 (50.81)	475 (29.69)	312 (19.50)	1,600 (100)
타 의	386 (41.50)	318 (34.19)	226 (24.31)	930 (100)
계	1,199 (47.39)	793 (31.34)	538 (21.27)	2,530* (100)

\* 무응답자 1명  
 $\chi^2=20.375$  df=2 p<0.01

실습前 期待感에서는 宗教있는 學生이 62.7%, 宗教없는 學生이 55.1%로 나타났다. 〈표 15〉

실습後 不安感에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満足感에서는 宗教있는 學生이 48.9%, 宗教없는 學生이 43.9%로 有意한 차이를 보였다. 〈표 16〉

그러므로 假說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 20) 김의숙: 전제서.
- 21) 최연준: 전제서.
- 22) 김미자: 전제서.

(3) 家族中 入院治療를 받은 경험유무별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과 實習後 不安感은 有意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實習前 期待感에서는 경험 있는 者가 57.6%, 경험 없는 者가 64%이었다. 〈표 17〉

實習後 느끼는 満足感은 경험 있는 者가 44.8%, 없는 者가 50.7%의 차이를 보였다. 〈표 18〉

그러므로 假說 3은 일부 채택되었다.

(4) 本人의 入院治療 경험別 臨床實習에 對한 先入見 및 不安感과 期待感 그리고 實習後 不安感 등 3個 領域에서 有意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臨床實習後 満足減에서만 경험 있는 者가 46%, 경험 없는 者가 47.7%로 나타났다. 〈표 19〉

그러나 근소한 차이밖에 안되므로 가설 4는 기각하였다.

(5) 家族이나 親戚中 看護員 有無別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에서는 有意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實習前 期待感은 親戚看護員 있는 者가 64.2%, 없는 者가 58.2%로 나타났다. 〈표 20〉

實習後 不安感에서는 親戚看護員 있는 者가 35%, 없는 者가 40%로 나타났다. 〈표 21〉

實習後 満足感에서는 親戚看護員 있는 者가 50.5%, 없는 者가 45.7%로 나타났다. 〈표 22〉

그러므로 가설 5는 일부 채택되었다.

(6) 看護學科 選擇을 自意로 決定한 如否에 따른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에서는 自意인 者가 43%, 他意인 者가 48.5%로 나타났다. 〈표 23〉

實習前 期待感에서는 自意인 者가 62.4%, 他意인 者가 56.7%로 나타났다. 〈표 24〉

實習後 不安感은 自意인 者가 36.75%, 他意인 者가 41.2%로 나타났다. 〈표 25〉

實習後 満足感은 自意인 者가 50.8%, 他意인 者가 41.5%로 나타났다. 〈표 26〉

그러므로 假說 6은 채택되었다.

#### IV. 考 察

1. 領域別 反應結果를 보인 臨床實習에 對한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主要原因은 “病院은 行動制限된 곳”이라고 生感하는 것과 “實習에 對한 知識不足”, “막연한 不安感”이었다.

이것은 金<sup>20)</sup>과 최<sup>21)</sup>, 金<sup>22)</sup>이 지적한 것과 같이 臨床



實習에 對한 興味를 잃는 일이 많음과 기대에 어긋나는 實習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임상실습에 나가는 일은 충격을 받는 일이라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돌아왔다.

또 金<sup>23)</sup>이 지적한 精神科 實習前 前건과 불안감이 높다는 것과 일치한다.

2. 實習前 期待感에서도 最高 92.5%로 비교적 높은 반응을 하였다. 主要因으로는 “많은 患者 접촉 可能” “臨床實習이 必須인 學科” “患者 고통 경감에 對한 코뎀”이었다. 이것은 최<sup>24)</sup>의 기대감은 있으나 어긋나는 實習이 問題點으로 본 것과 일치하는 反應이다.

3. 臨床實習後 不安感은 最高 66%로 나타났는데 主要因으로는 “看護技術 不足” “知識의 不足” “醫師 看護員 其他 醫療要員間的 役割갈등이나 對人關係”로 나타내었다. 이 結果는 金<sup>25)</sup>의 實習에 對한 否定的 태도가 문제점으로 나타남과 李<sup>26)</sup>의 對人關係가 증을수록 満足度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金<sup>27)</sup>의 對人關係에서 否定的인 態度와 心理的 不安感을 나타낸다는 結果와 일치한다.

또 李<sup>28)</sup>에서 인용된 學習原理中 對人關係는 學習상황에서 重要한 것이니 說을 立證하였다.

4. 臨床實習 經驗 후 満足感은 最高 66.5%이었으며 主要因은 “看護技術 習得” “學科 特殊性에 따른 必須性” “患者 看護에 自信感” 등이었다.

이러한 結果는 金<sup>29)</sup>과 李<sup>30)</sup>의 結果에서 90% 臨床實習에 満足하지 못한다는 結果와 全體的으로 満足度 아주 낮다는 結果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理由로 生醫해 볼 수 있는 것은 領域自體가 満足感에 對한 質問만 취급되었다는 것과 비교적 實習환경이 좋은 四年制 私立大學 學生만이 對象이었던 點을 들 수 있다.

5. 各 領域에 對한 學年別 差이는 學년이 올라감에 따라 不安感은 낮아졌으며 期待感은 높아졌고 満足感도 높아지는 結果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金<sup>31)</sup>의 學年이 높아진수록 満足度가 낮아진다는 結果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不安感이 해소되고 期待感이 높으며 満足感이 따라서 높아지는 일은 바람직한 現象이라고 본다.

6. 宗教有無別 檢證에서는 宗教있는 學生이 不安感이 적으며 期待感은 높으며 實習後 満足感은 높게 나타났다.

宗教別 差이가 나는 것은 宗教가 사람에게 安定感과 期待感, 現實 충족감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

7. 家族中 入院治療를 받은 經驗 있는 學生이 期待感이 낮으며 満足感도 낮았다. 이것은 過去入院時 學生의 판단기준이 定確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過去의 醫療나 看護水準이 낮았던 理由로 生醫해 볼 수 있다.

8. 本人의 入院治療 經驗 有無別로 臨床實習에 對한 態度에 有意한 差이가 없었고 入院 經驗이 없었던 人에게서 조금 더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満足度는 아주 낮았으므로 本人의 入院 經驗이 現在 實習에 對한 바람직한 經驗으로 影響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졌다.

9. 家族이나 親戚中 看護員 有無別 調査에서는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에서는 有意한 差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期待感에서는 親戚을 가진 人이 높게 나타났고 實習後 不安感은 낮으면서 満足感은 높았다. 이러한 結果는 家族이나 親戚이 看護職에 종사하므로 看護에 對한 理解가 높으며 長短點을 익히 알고 있고 問題가 생길 때 相談者를 가지고 있음을 意味한다고 보았다.

10. 看護學科 選擇을 自意로 決定한 것에 對한 結果는 自意選擇者가 實習前 先入見이나 不安感은 낮았고 期待感은 높았으며 實習後 不安感도 낮았고 満足感은 높았다.

이러한 結果는 “現場學習은 學生들의 動機有發과 自發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정<sup>32)</sup>의 지적과 같으며 選擇動機中 他意에 依한 人이 도중에 興味를 잃고 그만두려는 경향이 심하다고 지적한 李<sup>33)</sup>의 結果와 일치

23) 김소야자 : “정신과 간호 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간호학교 학생들의 태도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4권 2호, 1974, pp. 17~31.

24) 최연순 : 전계서.

25) 김의숙 : 전계서.

26) 이숙자 :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10권 2호, 1980, pp. 41~51.

27) 김소야자 : 전계서.

28) 이화순 : 전계서.

29) 김의숙 : 전계서.

30) 이숙자 : 전계서.

31) 김의숙 : 전계서.

32) 정승자 : 전계서.

33) 이숙자 : 전계서.

한다.

### V. 結論 및 提言

本 研究는 看護學生들의 臨床實習이 看護教育에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나 이에 對한 滿足度가 一般的으로 낮음을 감안하여 學生들의 學習效果를 높이기 爲한 資料로써 調査되었다.

서울 市內 5個 四年制 私立大學 看護學科 學生 3, 4 學年中 300名에게 研究者가 作成한 說問紙를 통하여 1981年 6月 4일부터 6月 20日까지 16日間 調査한 資料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을 높이는 이유는 “病院은 行動制限을 받는 곳” “實習에 對한 知識不足” “基他 不安”이 크게 나타났다.

2. 實習前 期待感을 높이는 이유는 “많은 患者를 직접 대할 수 있다” “臨床實習은 看護學에서 必須의인 것” “患者 고통을 軽減하는 보람”으로 나타났다.

3. 臨床實習後 不安感을 높이는 理由로는 “看護技術 不足” “看護知識 不足” “醫師나 其他 醫務要員과의 역할갈등과 對人關係”로 나타났다.

4. 臨床實習後 滿足感을 높이는 理由는 “看護技術習 得” “實習이 必須의인 것을 實感” “看護에 對한 自信 感” 등으로 나타났다.

5.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이 낮아지고 期待感과 實習後 滿足感은 높아졌다.

6. 宗教를 가진 學生은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이 낮았고 期待感은 높았으며 實習後 滿足感은 높았다.

7. 家族中 入院治療를 받은 경험이 있는 學生은 實習前 期待感이 낮으면서 實習後 滿足感도 낮았다.

8. 本人의 入院治療를 받은 경험 有無別 學生의 態度에는 有意한 차이가 없었다.

9. 家族이나 親戚中 看護員이 있는 學生은 實習前 期待感이 높으며 實習後 不安感은 낮으면서 滿足感은 높았다.

10. 看護學을 自意로 택한 學生은 實習前 先入見 및 不安感은 낮았고 期待感은 높았으며 實習後 不安感은 낮았고 滿足感은 높았다.

以上の 結論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提言을 한다.

1. 臨床實習에 對한 충분한 Orientation programe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實習을 爲한 구체적 知識을 充分히 習得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2. 臨床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看護技術, 看護知識, 對人關係에 對한 충분한 敎課運營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看護學이나 實習에 對한 올바른 期待感을 고취하여 滿足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看護學을 自意로 擇하도록 하고 適性에 맞는 學生들의 選發을 할 수 있는 事前 進學指導가 절대적으로 必要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고일선: “간호중재를 위한 불만내용 및 정도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김광주 외: “학생을 통해본 내외과 간호학 임상교육의 성취도”, 대한간호, 12권 4호, 1973.

김광주: “간호교육 및 업무의 실제와 문제점”, 대한간호, 14권 5호, 1975.

김광주: “임상간호교육의 진행과정에 있어 교수의 입장에서”, 대한간호, 13권 6호, 1974.

김광주, 이향련: “효과적인 자율학습”, 간호학회지, 8권 1호, 1978.

김명자: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기초 일 연구”, 중앙의학, 28권 4호, 1975.

김모임: “우수성—간호진문지의 필수조건”, 대한간호, 14권 5호, 1975.

김미라: “기본간호행위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자진감 조사 연구”, 대한간호, 15권 2호, 1976.

김미자: “현실충격”, 대한간호, 20권 4호, 1981.

김소야자: “정신과간호 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간호학교 학생들의 태도 비교 연구”, 간호학회지, 3권 3호, 1973.

김영숙: “임상간호 교육을 위한 학생간호원의 태도조사”, 중앙의학, 28권 5호, 1975.

김완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교육내용”,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김의숙: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교육”, 대한간호, 20권 4호, 1981.

김인숙: “간호학생 임상실습에 관한 일 고찰”, 김천간호논문집, 1973.

노경호: “간호대학생들의 수출실 실습에 임하는 태도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6.

도복늬: “간호교육과정분석”, 간호학회지, 4권 1호,

- 1974.
- 메리 A. 던센: "대학교과정 간호교육의 최근 방향", 대한간호, 9권 1호, 1970.
- 박오장: "간호학생 임상실습 평가에 대한 수간호원의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8권 2호, 1978.
- 박정자: "간호교육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월간간호, 1978.
- 방옥순: "임상간호학습에 있어서의 종합평가", 중앙의학, 15권 1호, 1976.
- 변창자: "간호교육과정 개선", 간호학회지, 4권 3호, 1974.
- 안진주: "간호교육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 조사", 중앙의학, 29권 5호, 1975.
- 오가실: "소아간호 실습시 성년기 간호학생들의 긴장감", 간호학회지, 4권 3호, 1974.
- 오가실: "임상간호교육의 진행과정", 대한간호, 13권 6호, 1974.
- 유성자: "임상간호교육지도에 대한 연구", 경희학회지, 1973.
- 이경식: "교육철학적으로 본 간호교육", 대한간호, 14권 4호, 1975.
- 이숙자: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10권 2호, 1980.
- 이연순: "간호교육과정 개선", 간호학회지, 4권 2호, 1974.
- 이평숙: "스트레스사건과 적응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0권 1호, 1980.
- 이화순: "임상간호교육을 위한 일 연구", 대한간호, 11권 4호, 1972.
- 전영자: "임상교육 계획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10권 3호, 1971.
- 전종휘: "간호원상은 바람직한가?", 대한간호, 11권 6호, 1972.
- 정송자: "간호교육에 있어서 현장진학의 이론과 실제" 대한간호, 11권 5호, 1972.
- 조원정: "교과과정 구성(안)",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 최계영: "간호대학생의 욕구구조", 간호학회지, 4권 1호, 1974.
- 최상순: "교과과정 구성",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 최연순: "임상간호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대한간호, 13권 5호, 1974.
- 최영희: "내외과간호학 임상교육에 관한 일 연구", 이화대 창립 20주년 기념 교수 논문집, 1976.
- 최현자: "간호학생 문제의 일 분석연구", 대한간호, 11권 4호, 1972.
- 론로이: "교육조직의 기반",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 하영수: "간호학습활동계획", 대한간호, 12권 5호, 1973.
- 하영수: "학습지도계획 및 평가", 대한간호, 14권 3호, 1975.
- 하영수: "간호교육과정의 구성",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 한상숙: "4년제 간호학생 지각과 실습성적", 간호학회지, 6권 2호, 1976.
- 한운복: "교과과정 구성(안)", 대한간호, 10권 2호, 1971.
- 한정석: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태도 변화", 간호학회지, 3권 2호, 1973.
- 허경호: "간호교육 목표의 일시안", 대한간호, 11권 1호, 1972.
- 허경호: "간호교육 목표의 일시안", 대한간호, 11권 2호, 1972.
- 홍신영: "한국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논문집, 1970.
- 홍신영: "한국 간호교육행정의 발전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2.

## A Survey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Kim, Ju Hee

(Associate Professor, Nursing Dept, Han Yang Univ.)

Clinical practice for the nursing students dominate important part of the nursing education.

But the level of the student's satisfaction for the practices is comparatively low.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mote the effect of the student's practices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mentioned realities and this report may be used as a material for reference in that field.

The researcher has distributed the written inquiry to the 300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of 5 private nursing school which are located in the Seoul city, and analyzed the answer of the above inquiries which are collected from June 4, 1981 to June 20 1981.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esearcher has at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reason for heighten the preconception and feeling of uneasiness before the practices are; "A Hospital is the place where one's behaviors are restricted", "Lack of knowledge for practices" and "Other unrest factors"

2. The reasons for the promotion of expectations before practices are; "be able to meet with various patients", "clinical practice is indispensable part of the nursing science", and "satisfactory feeling for the alleviation of patient's pain".

3. The reasons for the heightening of uneasy feeling after clinical practice are; "lack of knowledge" and "difficulties for the sharing roles with doctors and other persons engaged in the medical field and human relationship".

4. Reasons for the promotion of satisfaction after the clinical practice are; "learning nursing technics", "acknowledge the imperative necessity" and "self-confidence for nursing practices".

5. Differences of attitude by the school year illustrate that preconception and uneasy feeling are lowered gradually as the school year rises, but the expectation and satisfactory feeling are promoted.

6. Students who believe in religion have high expectation before practices and satisfaction after practices, have little preconception and uneasy feeling compared with those who do not believe in religion.

7. Attitude of Students, one of whose family members has been hospitalized in the past are low in expectation before practices and also have little satisfaction after practices.

8. There are no particular differences of student's attitude between the students who has been hospitalized in the past and who did not.

9. The students, one of whose family members or relative is nurse, are high in expectation and uneasy feeling is low, before practices satisfaction is high after practices.

10. The attitude of the students who make the selection of nursing science for themselves are low in preconception and uneasy feeling before practices and expectation is high, and satisfaction is high after practices.

I, hereby come up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conclusions.

1. Detailed orientation programs for the clinical practices shall be prepared before the practices, and method shall be arranged for the attainment of concrete and enough knowledge for the practices.

2. Curriculum for the nursing technics which are needed for the clinical practices, nursing knowledge, human relationship shall be managed properly.

3. Sound expectations of the student shall be promoted, as the satisfactions are high among the students who have sound expectations for the nursing science or practices.

4. Nursing science shall be selected by student's own will and shall be selected among the persons who have vocational aptitude, as the conclusion show that the expectation is high, preconception and uneasy feeling is low and satisfaction is high among the students who chooses her way by herself.